

의견 불일치의 문제

-아세르 인트레이터



도덕적 혹은 영적인 가치를 다룰 때는 항상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을 경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악한 행위를 미워해야 하지만 (**잠 8:13**), 그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요 3:16**). 예수아만큼 죄를 꾸짖은 사람도 없지만, 그 분만큼 죄인들에게 친구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눅 7:34**).

저희는 아랍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슬람 지하드의 영향을 받아 미워하고 죽이고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간음이나 성 매매와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즉시 편협하다고 맹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생물학 biology 의 문제이지, 편협성 bigotry 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경멸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도덕적, 사회적 문제는 논의하고 싶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저희는 전통적 기독교와 유대교 양쪽 모두와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극정통 유대교인들(하레딤)과는 예수아(예수)를 믿는 저희 신앙에 대한 충돌 문제 외에도 몇 가지 객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구전 율법** – 극정통 유대교의 교리 중 한 가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구전 율법을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몇몇 기독교단에서 성경의 진리보다 교회 전통의 권위를 더 신봉하는 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2. **이방인에 대한 태도** – 대부분의 극정통 유대교에서는 비유대인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데, 이것은 일반의 인종차별주의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유럽 기독교 내의 많은 반유대주의에 도전하듯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3. **종교 독점** – 이스라엘에서는 정통유대교에서 결혼이나 개종을 포함한 종교적 제도를 통제합니다. 심지어 보수주의 랍비들조차 실질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4. **반시온주의** – 대부분의 하레디 사회는 세속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반대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샤리아 법을 가진 국가만을 인정하는 급진적 무슬림들과 비슷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배척하고 군복무에 반대합니다.
5. **납세의 부패** – 정부 예산으로부터 큰 비중의 보조금을 요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에서 빼내어 세금과 경제적 기반에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함을 기억하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논의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합시다.

동성애에 대한 브라운의 CNN 토론



귀한 친구 마이클 브라운 Michael Brown 박사가 CNN 에 나와 동성애에 대해 토론하는 이 짧은 동영상을 꼭 보십시오. 그는 세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아께서 동성애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논박합니다:

1. 토라의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마 5:17)
2.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마 19:5)
3. 동성애를 포함한 음행(포르네오)은 간음에 상응하는 것이다 (마 19:9)

브라운 박사는 또한 “직장直腸은 배설을 위한 기관이지 생식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동성애의 뻔뻔스러운 생물학적 모순을 통렬히 꼬집습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영어).

도덕적 나침반

-마티 쇼샤니 Mati Shoshani



예수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은 구원의 메시지를 나름대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개인적인 소명과 집단적 소명 또한 사회에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 장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필요성과 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지형을 바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마가복음 1 장에서도 인용되는데, 세례 요한의 도덕적 혁명에 대한 촉구가 예슈아의 나타나심에 전조가 됩니다.

예슈아께서는 친히 도덕적 혁명을 주창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의례적 계명에 대한 율법적 논의는 비난하셨지만, 토라 말씀 이면의 가치와 도덕은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를 예슈아께서 결혼 언약과 관련하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신 마가복음 10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저는 묻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를 결정짓고 있습니까? 예슈아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 경건, 재정적 청렴, 땅의 소유권, 결혼의 기준 - 를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도덕적 가치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야 할 요구를 마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못이라거나 옳다고 믿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덕적 주제, 즉 한 공동체로서 저희가 열망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 예슈아, 성령을 통해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저희가 저희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장벽이냐 울타리냐?”에 대한 마이어즈의 생각



귀한 친구 칼렙 마이어즈 Calev Meyers 가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들 사이의 이른바 “분리장벽” 문제를 논하는 이 짧은 동영상을 꼭 보십시오. 이것이 장벽이냐 울타리냐의 문제에 대해 칼렙은 97%의 가르는 벽이 가벼운 사슬 울타리이지 두꺼운 시멘트 벽이 아니라는 통계를 인용합니다.

민족적 분리냐 안보적 보호냐에 대해 칼렙은 가르는 벽이 세워진 이후로 경내로 넘어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되는 유대인의 수가 98% 감소했으며, 테러리스트의 테러 행위가 없었던 곳에는 장벽이 하나도 없다는 또 다른 통계를 듭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샤부올 모임에 대한 반응



지난 주에 인터넷 생중계로 오순절 철야금식기도회에 참석하셨다면, 이 저녁에 대해 영적이든 기술적이든, 어떠한 후기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답장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